

“문화재 지킴이 1만명 양병 나서자”

우리나라 곳곳 분포 '등록 문화재' 1만여개 달해
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 힘들어 치명적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 전국 3500여명 참여

지난 2008년 일어난 승례문 소실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국보 1호 승례문은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에 발화된 뒤 5시간만인 다음날 새벽 1시 54분 완전히 전소되었다.

국민들은 실시간 전해지는 TV 영상으로 승례문이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치욕과 울분과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굴렀다. 통곡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서울 도성의 남대문(南大門), 1395년(태조 4년)에 짓기 시작하여 1398년(태조 7)에 완성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해체 보수 공사를 한 한국 문화유산의 얼골이자 상징이었던 승례문. 이 승례문의 600년 역사와 한국인의 자존심이 단 5시간 만에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다.

소극적으로 진화했던 소방당국과 관리관청인 문화재청과 서울 중구의 늦장 대처가 전소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더 포괄적인 원인은 모든 국민들의 방심과 함께 감시 관리의 눈이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

방화범은 이전에도 국가 문화재에 화재를 냈던 적이 있었다. 2006년 4월

26일 오후 5시 4분께 국보 제223호인 경복궁 근정전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조선 초기부터 역대 국왕의 즉위식이나 대례를 거행하던 근정전의 화재.

그러나 이때는 이곳을 관람하던 관람객 3명이 비치된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에 나서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지는 않았다. 안전한 문화유산 관리체계와 감시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였다.

문화유산은 일단 한번 훼손되면 다시는 복원하기 힘들어 치명적이고,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된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지난 2006년부터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을 펼쳐왔다. 생활 속에서 국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찾아가, 즐기며, 가꾸고, 보전하는 운동이다.

‘문화재를 잘 가꾸어나가는 문화’를 후손에게도 물려주자는 것이다. 문화재를 사랑하고 즐기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역사 단체, 기업체, 학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은 문화재에 찾아가서 유래에 대해 공부하고 청소도 하면서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불철 내 고고장 문화재 기구는 날 행사를 위해 만귀정을 찾은 회원들의 모습. (대동문화재단 제공)

은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곳곳에 분포한 지정 및 등록 문화재는 모두 1만여 개. 자기 가까운 곳의 문화재와 자매결연을 맺어 ‘내 문화재’로 삼고 자주 찾아가 돌봐주고 지켜주는 ‘문화재 지킴이’ 1만 명이 있다면 전국의 모든 문화재가 지켜질 수 있다. 현재까지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은 전국에서 1421명의 단체 지킴이, 가족 지킴이 516명, 개인 지킴이 2607명, 35개 협약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문화단체인 대동문화재단이 지난 5월 26일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함께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우수 활동단체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동안 대동문화재단은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에 참여하여 말

없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전해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올해에는 문화재청 문화재 상시관리 활동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광주 양림동의 등록문화재 관리와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가 중에는 3년 전부터 이 운동에 동참한 가족이 있다. 그 가족의 한 명인 고등학교생이 올해 대학 사학과에 입학했다.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가족과 함께 하다 보니 우리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이 생겨난 것이다. 문화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다.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마음의 변화다.

▲백승현·대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광주시 북구 문흥동 호동경로당 ‘우리춤 체조팀’

“건강 챙기며 봉사활동 하니 기쁨 두배”

광주시 북구 문흥2동에 경사가 났다.

북구 문흥동 어르신들로 구성된 호동경로당 우리춤 체조팀이 ‘제6회 나비와 함께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이다.

지난 5월 7일 함평나비 대축제장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27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두례 강사와 호동경로당 회원 등

어르신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민요에 맞춰 5분가량 봉사활동 등으로 갈고 닦은 우리춤 솜씨를 뽐냈다.

김갑근(73) 호동경로당 회장은 “건강을 위해 배우기 시작한 우리춤으로 대회에 참가해 상도 받고 기분이 좋다”며 “상급은 봉사활동을 하는 여리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동경로당 어르신은 북구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2010 건강백세! 해피실버’ 운동프



북구 문흥동 어르신들로 구성된 호동경로당 우리춤 체조팀이 제6회 나비와 함께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주북구청 제공)

로그램을 통해 생활 체조를 익히고 있다. 우리춤 건강체조를 배우기 시작한 2007년부터 호동실버예술단을

꾸러 요양원,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문미영·광주시 북구 흥흥2동

클릭! 맛집



코스로 맛보는 오리요리 진수

생오리-훈제 바베큐-삼백탕-참쌀죽 등 '건강 종합세트'

식욕 자극 비법은 인삼 등 34가지 재료 넣은 '양념꽃게장'

■광주시 쌍촌동 '신토불이'

오리고기는 여름철 기력회복에 좋은 최고의 보양식 중 하나다.

단팥죽과 불포화 지방산까지 충분히 피부건강은 물론 영양보충·혈관질환예방 등 몸에 좋은 것은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905-50 오리전점점 '신토불이' (업주 양재학)는 한약재료를 소이는 삼백초를 먹여 생후 40여일만 키운 오리로 코스요리를 하고 있다.

보통 일반 오리고기는 45일이 넘으면 잡내가 나지만 이 집의 오리는 크기는 작은 대신 철저히 40여일을 지켜 잡내가 없고 육질이 훨씬 부드럽다. 크기는 작아도 손님에게 내오는 오리는 푸짐해 오히려 많다고 느껴질 정도다.

이 집의 오리정식코스(4인기준)는 생오리로소구이·양념꽃게장·오리훈제바베큐·떡갈비·양념주물럭·삼백탕·참쌀죽·냉면·팔복수 순으로 나온다. 먼저 나온 생오리로소구이를 먹어보니 오리 특유의 잡내가 전혀없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혀 끝에서 맴돌아 자꾸 집어먹게 된다.

주인장이 직접 만드는 양념꽃게장은 인삼·밤·구기자 등 34가지의 재료를 넣어 만들어 맵거나 짜지도 않고 살짝 단맛까지 내 식욕을 자극한다. 이 꽃게장의 양념에 로소구이를 찍어 먹으면 그 맛은 배가 된다.

오리훈제바베큐는 한 점 집어 먹으면 순간 언제 목구멍으로 넘어갔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다. 일반 오리

고기 음식점의 질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한 점 두 점 가족끼리 도란도란 먹다보면 어느새 다 먹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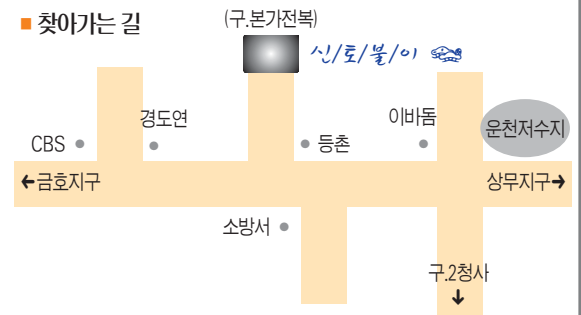
하지만 여기가 코스의 끝이 아니다. 오리고기로 만든 떡갈비와 양념주물럭이 입맛을 다시 불러온다. 주물럭 양념은 인삼 등 15가지 재료를 넣어 만들어 매콤하다. 떡갈비도 좋은 오리고기를 쓴 탓인지 입에 착 감기는 맛이다.

다 먹은 줄 알았더니 음식이 또 나온다. 삼백초뿌리와 황기·구기자·감초 등을 넣고 오리뼈와 함께 4시간 끓인 삼백탕은 진한 국물맛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다. 여기에 이 국물로 만든 참쌀죽도 함께 나와 애주가들은 술을 찾을 수 밖에 없다.

후식으로 나오는 냉면과 팔복수도 대충 가질 수 채우기 위한 눈요깃거리로 나오는 음식이 아니다. 주인장의 배려와 정성이 깃들여 있다.

오리 정식코스(4인기준) 6만5000원, 3인 기준 5만 5000원. 문의 062-368-5292.

/글·사진=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서울) 퍼스트부동산

☎ (02) 515-8698 010-6245-5585

전국 산 땅 팔 분

1천만 ~ 10억 즉시 계약 물물교환도 환영

금산공인중개사

T.681-5886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4면 광로변)
-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 3.3㎡당 매매가: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 종합병원/상가/오피스/유흥가능

주유소부지 급매

- 위치: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농공단지 앞
- 면적: 대지 1400㎡, 도로면적 910㎡
- 특징: -주유건축시설 허가 특 -도로점용 허가 특 -마당에서 광주상행선 첫주유소부지 -2010년 9월 완공 칠량농공단지 앞 유익주유소
- 매매가: 1억 7천만원

매월동 자연녹지 매매

- 면적 : 약 3,870㎡
- 단가 : 평당 200만원
- 위치 : 매월저수지 옆, 대동고 가는 대로변
- 빌라, 가든, 전원주택 최적합
- 지가 급등지역

인기폭발 신제품!!

이내가 개발한 '큰놈'

달팽이 도양같은 실라폰이 처음 보이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장 없이 반영구적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나게 날개 돌쳐 나가고 있다.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춘의 꿈, 파워마카1100%, 분말로 대신하면 좋습니다. (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 구매시 핫나경서적이 없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지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히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홍진판매 신고증 제1188호) (G-FLOW)

1577-4101 010-8952-4114, 010-8558-4114

동행 301-0036-8883-71 예금주:글로벌 핫나경 www.핫나경.kr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르... 분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리며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랄만한 마그마원석의 다이아몬드 링은 상황에 따라 편리하도록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8만원 상당의 고급 사은품 증정)

은 60% 대, 중, 소 10단계조절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의사와 약사가 명예를 걸고 3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개발한 이 제품은 그동안 남보르게 고민해오던 탈모 무모증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 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야겠죠? 모근에 영양 공급이 바르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뿐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88-4102 010-5296-4114, 010-8952-411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 전선영 (홍진판매 NO. 19-5301호) 동행 589-12-034626 예금주:배의자 www.핫나경.kr